

2023년도 제3차

## 인천시문화재위원회 제2분과 회의록(공개)

■ 회의일시: 2023. 7. 20.(목) 10:00 ~ 12:10

■ 장 소: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회의실(지하1층)

■ 참석대상: 7명

○ 안귀숙(위원장), 염은영, 이숙희, 남달우, 최영숙, 이형우, 안태욱

■ 심의안건: 2건

○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시 유형문화재 현상변경: 1건<원안가결>

○ 여지도(輿地圖)시 유형문화재 지정 검토 심의: 1건<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위원회(2분과) 제3차회의 안건 목록

### 【심의사항】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

1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시 유형문화재 현상변경

강화군청  
[전등사]

### 【검토사항】

<시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검토>

2

여지도(輿地圖)

부평구청  
[문\*\*]

# 심 의 사 항

## 1.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시 유형문화재 현상변경

### 가. 제안사항

2023년도 시비보조로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의 보존처리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건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화군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보존처리계획의 승인)에 따라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보존처리계획 승인을 신청함
- 보존처리계획이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문화재수리법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보존처리계획 승인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의제처리됨

### 다. 지정현황

- 명칭 : 시 유형문화재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2002. 12. 23.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 형태/수량 : 불화 1폭

### 라. 사업내용

- 사업명 :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 보존처리
- 사업비 : 43,440천원
- 주요내용 : 사진, 상태조사·분석결과, 보존처리 공정, 예정공정표, 내역서

### 마.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의견(2023. 6. 28, ○○○, ○○○ 위원)

- 전등사 약사전(보물, 1963년) 내 현왕탱(인천시 유형문화재, 2002년)은 중앙약사여래도(인천시 유형문화재, 2022년) 향 좌측에 보존되어 있음
- 현대식 액자에 보존된 동 문화재는 안료박락, 미생물오염, 주름, 찢농, 일부 덧칠 등으로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임
- 보존처리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되 문화재청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보존처리계획서를 수립하고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가 참여하여 다음 중요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추진이 필요함
  - 전통방식 장황 복원 여부, 복장낭 조사와 기록, 찢농과 미생물 등으로 인한 오염제거 등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 □ 세부검토의견

-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89×108cm, 1884년)은 전 내 향 좌측에 보존된 작품으로 사람이 사후 3일 만에 심판하는 현왕과 그 권속을 도상화한 것, 현왕은 염라왕을 다른 모습으로 도상화한 것으로 19세기 유행한 그림이며, 현재 시도지정문화재 중 파주 보광사 현왕탱(1802년), 서울 청룡사 현왕탱(1868년), 양주 청련사 현왕탱(1880년), 남양주 건성암 현왕탱(1882년) 등 경인지역에 다수의 작품이 전하고 있음, 전등사 현왕도는 의성 지장사 현왕탱(1880년)과 동일한 초조본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작품은 전 내 중앙의 약사여래도와 비교하여 원래 보존 상태에서 현상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사진1) 앞뒤 정밀 촬영 자료를 통해 훼손 현황 파악 가능(사진2,3)
- 작품구성은 현왕을 크게 그리고 판관(判官), 녹사(綠事), 동자(童子) 등을 원형으로 배치한 구도로 현왕과 제 존상들의 얼굴 방향이 서로 달라 자연스럽고 화면에 생동감을 주고 있으며, 채색은 적색을 위주로 흑, 백, 청색을 배합하였고 바탕에 19세기 말 유행한 사선격자문이 확인됨, 하단 화기에는 광서 10년인 1884년 동호진철(東昊震徹)과 긍법(肯法)이 그린 것으로 확인, 동호진철은 19세기 후반기 문경 대승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사불산파(四佛山派)의 화사로 하은위상(霞隱偉相)을 이은 인물임.

[화 기]

綠化所秩

證明 鳳城瑞麟 就虛英燮 誦呪比丘 一祐 金魚比丘 東昊震徹 比丘 肯法

別座比丘 玩琦 都監比丘 宗仁 維那 映潭道源

化主 孝月柔談 鐘頭比丘 應燁 供司比丘 應淳

施主秩

清信女海德行金氏 清信女普恩行金氏

光緒十年甲申三月日 造成于鼎足山 傳燈寺奉安于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島

- 이 작품은 안료박락, 미생물오염, 주름, 찢농, 일부 덧칠(사진4) 등으로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보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문화재보존처리계획서를 수립 추진하되, 문화재 이운, 기초조사 및 정밀분석에서부터 보존처리인 클리닝, 안정화처리, 결손부 복원, 훈증처리 등 전 과정을 문화재수시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진행하며 그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 보존 필요.
- 보존처리과정에 찢농, 이물질 등은 제거하되 덧칠한 부분 제거 작업은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필요하며, 복장낭에 대한 조사와 기록, 전통방식 상황의 복원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

□ 참고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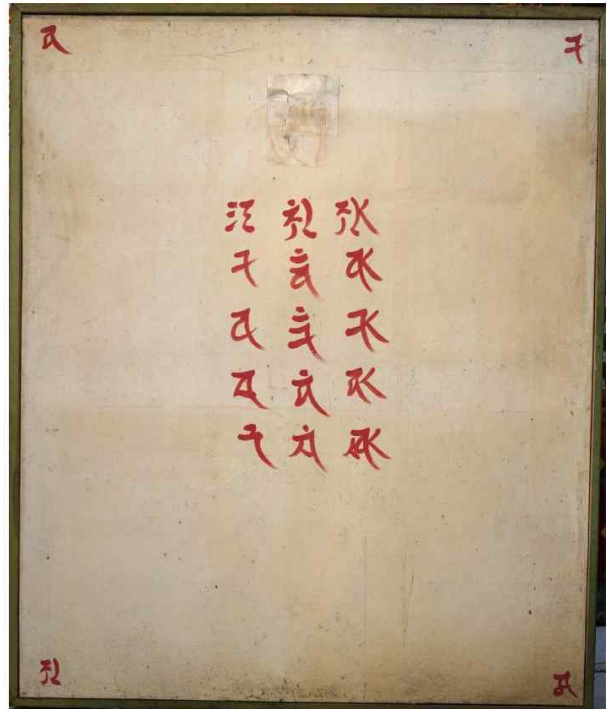
유물 현황도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 현황(사진1/2023.06.28.현장조사)



현왕탱 - 정면



현왕탱 - 배면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사진2,3/○○연구소 사전조사서 캡처)



## 유물 현황도



쫓놈



미생물로 인한 오염



미생물로 인한 오염



미생물로 인한 오염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 오염 부분(사진4/○○연구소 사전조사서 캡처)



# 검 토 사 항

## 2. 「여지도(전)」시 유형문화재 지정 검토 심의

### 가. 제안사항

부평구청에서 신청한 ‘여지도(전)’의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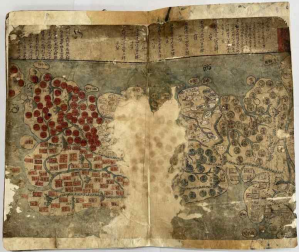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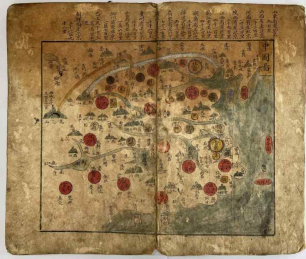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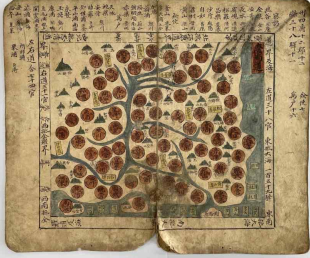
### 나. 제안사유

- 개인(문\*\*)이 소유·보관중인 ‘여지도(전)’에 대한 시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신청(’21.5.14.)이 있어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3.6.12.)를 실시하고,
- 위 사안에 대해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여지도(輿地圖)
- 소 유 자: 문\*\*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공원로 \*\*
- 수 량: 1점(15면, 표지미포함)
- 규 모: 20×35cm(펼친 지도)
- 재 질: 紙本
- 형 식: 호접장 / 채색필사본(한적 접이식)
- 조성연대: 1751년 추정
- 제 작 자: 미상
- 내 용

면	내용	면	내용	면	내용
앞표지	결실 (洋紙를 덧댐)	6면	東國八道大揔圖	12면	慶尙道
1면	朝鮮八道揔圖	7면	京畿道	13면	江原道
2면	渾天下圖	8면	忠淸道	14면	咸鏡道
3면	中國圖	9면	黃海道	15면	都城揔圖
4면	琉球國圖	10면	平安道	뒤표지	輿地圖全 監試 묵서
5면	日本國圖	11면	全羅道		

		
1. 표지 앞면 / 뒷면	2. 호접장 장정	3. 호접장 양면 가장자리 폴칠
		
4. 조선팔도총도	5. 혼천하도	6. 중국도
		
7. 유구국도	8. 일본국도	9. 도성팔도대총도
		
10. 경기도	11. 충청도	12. 황해도
		
13. 평안도	14. 전라도	15. 경상도

< 여지도(전)>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 위원(지정 가치 있음)

- 1751년 이전과 이후의 지도와 제작 방법을 비교하여 조선후기 지도 제작의 시기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음.
- 심의대상 『여지도 전』은 각 주·부·군·현의 읍격을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경기도 지도에 강화(유수부), 인천·부평·통진(도호부), 교동(순군절도사영), 김포(군수), 양천(현령), 금천(현감) 등이다. 이는 당시 인천 인근 지역의 읍격을 읍지 및 지리지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 또한 후대에 첨가한 내용 중에 주부군현의 아래 등급의 마을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 지도가 국가에서 각 지방을 파악하기 위해 간략한 지도가 필요하여 필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 도성도가 『여지도』에 첨부된 경우는 흔치 않다. 혹 다른 『여지도』에 도성도가 있더라도 상세하지 않다. 반면 신청 『여지도 전』의 도성총도는 도성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였음.

○ 외부전문가 ○○○ (지정 가치 있음)

- 조사대상 <여지도(輿地圖)>와 형태·내용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동람도형 지도책’은 국내의 주요 도서관 및 박물관에 114종이 소장되어 있고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양도 많아 희소한 가치를 지닌 지도책은 아니다. 그러나 지도에 사용된 종이(닥지)와 배접두께, 채색수준과 글씨체 등을 종합해 보면 민간이 아닌 도화서 화원이 참여한 국가기관의 제작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도성총도>가 함께 편집된 ‘동람도형 지도책’의 사례는 극히 드물며 1751년 <도성삼군문분계지도>제작과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외부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 희귀성이 낮은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의 지도책이라는 점, 수록된 정보에서 특이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지명과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점 등의 측면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낮음
- 다만, 글씨와 채색의 수준이 높아 도화서 화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제작가능성이 있는 점, 회화수준이 높은 「도성총도」가 함께 편집된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의 사례가 극히 희귀한 점, 소장자가 첨부한 조

선전도 또한 희귀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역사적 보존 및 학술적(지  
도학사적) 연구 가치가 충분하여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소장경위서 및 소장 증빙자료 등 제출 필요
- 출석 7명 / 원안가결 7명

<붙임>

## 문화유산 조사 의견서

### ☐ 문화유산(기념물) 개요

- 유 물 명 : 輿地圖 全
- 제작연도 : 1751년
- 크 기 : 20cm×35cm
- 도면 수 : 15도
- 소유자 및 관리자 : 문\*\*(부평구 부평공원로 \*\*)

### ☐ 문화유산(기념물) 현황

- 시 대 : 조선후기
- 유래 및 연혁

심의를 요청한 『輿地圖 全』은 1책 15圖로 朝鮮八道摠圖, 渾天下圖, 中國圖, 流球國圖, 日本圖, 東國八道大摠圖, 京畿道, 忠清道, 黃海道, 平安道, 全羅道, 慶尙道, 江原道, 咸鏡道, 都城摠圖 순서로 구성되었다.

함경도 지도에 “歲在辛未三月日手粧”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신미년 3월에 필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후기 신미년은 1631년, 1691년, 1751년, 1811년, 1871년 등이다. 그런데 경기도 지도에 통진의 읍격을 府로 표기하였는데 府는 종3품 관아인 도호부이며 통진이 도호부로 승격한 것은 1694년이다. 한편 수원 역시 도호부로 표시되었다. 수원은 1413년 도호부가 된 후 1793년 유수부로 승격된다. 그러므로 신미년은 1694~1793년 사이인 1751년이 된다.

<소장 경위>

현재 소유자의 조부때부터 소장하고 있다고 함.

## ○ 제작(조성)방법

접이식의 13첩 필사채색지도책으로 장책은 포배장(包背裝 : 지도책을 접어 여러 겹으로 접은 후 한 장의 종이로 덮어 싼 장정)이며 표지는 근자에 덧대었음.

## ○ 현 보존실태

- ① 표지부분 : 지도책의 좌측 위 및 아래 부분, 우측 위와 아래 부분, 가운데 아래 부분이 훼손되었다.
- ② 장책 : 근자에 화선지를 임시로 덧대었다.
- ③ 내용부분 : 표지는 일부분 훼손되었으나 지도가 선명하고 지도에 대한 설명을 표기한 註의 글씨도 선명하여 지도의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조선팔도총도는 후에 첨가한 것으로 가운데 부분이 매우 많이 손상되었다.

## □ 조사의견

### ○ 문화유산(기념물)의 특징

- ① 표지 : 輿地圖 全 아래에 監試(생원진사시 또는 사마시라고도 한다)라고 표기되었다. 단정할 수 없지만 1751년에 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필사자 또는 소장자가 監試와 관련 있는 듯하다.(기타의견에서 보충 설명)

### ② 체제와 내용

1도 : 朝鮮八道摠圖는 후대에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2도 : 渾天下圖--하단에 인장, 좌측에 몇몇 국가의 인물들의 신장(35척, 1척) 수명(18,000, 800살) 등이 기록되어 있다.

3도 : 中國圖--각 省에서 북경까지의 거리가 표기

4도 : 琉球國圖--유구와 주변 섬의 지명만 표기

5도 : 日本圖--대마도까지만 표기, 독도에 관한 표기는 없다.



- 6도 : 東國八道大摠圖--각 지방(주로 목이상의 읍격)京城까지의 거리 표기  
 7도 : 京畿道--주부군현의 수, 역의 수, 첨절제사, 만호 표기(이하 8도의 지도는 이 체제를 따랐다), 지명의 바탕색을 노란색으로 표기, 역은 붉은색  
 8도 : 忠淸道--지명의 바탕색은 붉은색, 역은 노란색  
 9도 : 黃海道--지명의 바탕색은 흰색, 역은 붉은색  
 10도 : 平安道--지명의 바탕색은 검정색, 역은 붉은색  
 11도 : 全羅道--지명의 바탕색은 붉은색, 역은 노란색  
 12도 : 慶尙道--지명의 바탕색은 붉은색, 역은 노란색  
 13도 : 江原道--지명의 바탕색은 청색, 역은 붉은색, 于山島 표기  
 14도 : 咸鏡道--지명의 바탕색은 검정색, 역은 붉은색  
 15도 : 都城摠圖--후에 첨가된 듯함,

지도의 지명에는 읍격과 한양까지 가는데 걸리는 날자가 기록되었다. 그리고 각 圖의 註에 州·府·郡·縣과 驛, 찰방, 수군 첨절제사, 수군만호 지역이 표기 되었으며 주·부·군·현 수의 합계를 기록하였다. 아래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주·부·군·현 안의 전체 마을의 수가 표기되었다. 각 道의 채색은 5행을 따랐다.

## ○ 문화재적 가치

① 1751년 이전과 이후의 지도와 제작 방법을 비교하여 조선후기 지도 제작의 시기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② 심의 대상 『여지도 전』은 각 주·부·군·현의 읍격을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경기도 지도에 강화(유수부), 인천·부평·통진(도호부), 교동(수군 절도사영), 김포(군수), 양천(현령), 금천(현감) 등이다. 이는 당시 인천 인근 지역의 읍격을 읍지 및 지리지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학술적 가치**).

또한 후대에 첨가한 내용 중에 주부군현의 아래 등급의 마을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예 : 경기도 州4 府6 郡9 縣16 驛6 左右道合 三十八官 左萬五千三百七十五官, 右二萬五天三百四十官) 여기서 “左萬五千三百七十五官, 右二萬五天三百四十官”가 후대에 첨가된 내용이다. 이는 이 지도가 국가에서 각 지방을 파악하기 위해 간략한 지도가 필요하여 필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학술적 가치**)

③ 도성도가 『여지도』에 첨부된 경우는 흔치 않다. 혹 다른 『여지도』에 도성도가 있더라도 상세하지 않다. 반면 신청 『여지도 전』의 도성총도는 도성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였다.(학술적 가치 및 예술적 가치).

\* 참고로 다른 『여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물 제1592호 『輿地圖』(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3책의 지도책으로 1책에는 서구식 세계지도인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 조선전도인 아국총도(我國總圖), 청의 북경 지도인 북경도성삼가육시오단팔묘전도(北京都城三街六市五壇八廟全圖), 중국지도, 의주-북경 사이의 사신로(使臣路)를 그린 지도, 도성도, 조선·일본·유구(오키나와)를 합한 동부아시아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2책에는 팔도가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황해도-평안도-강원도-함경도의 순서로 그려져 있고, 3책에는 청의 광역행정단위인 16개의 성(省)이 성경성-직예성-산서성-섬서성-하남성-산둥성-강남성-호광성-사천성-강서성-절강성-북건성-광둥성-광서성-귀주성-운남성의 순서로 그려져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②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여지도

하나, 1776년 제작 여지도 : 비치일 20210805, 99면(천하도, 중국도, 유구국도, 일본도, 어가 대명문, 만수산, 요소관방지도(11도), 조선지도, 송도, 도성, 경기도)-- 도성지도가 간략

둘, 조선후기 비치일 20210609 여지도, 10면(경기부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에는 도성지도가 없다.

셋, 간사자미상 비치일 20210609 여지도 120면(천하지도, 중국도, 일본국도, 유구국도, 조선총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에도 도성지도가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 신청한 『輿地圖 全』은 문화재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 기타의견

### ① 소장 경위 확인필요

② 표지에 ‘監試’라는 표기는 지도를 필사한 인물이 監試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지도에 押印된 도장에는 “常山宋弼休<sup>輔</sup>印<sup>章</sup>” (혼천하도에 있음)라 되어있다. 송필휴는 1771년(영조 47년) 식년 진사시에 입격한 송문현(宋文顯)의 아버지다. 그리고 송필휴는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고 다만 유학(幼學)이었다.(출전 : 『송정3신묘식년사마방목(崇禎三辛卯式年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古朝26-29-43]) 이로 볼 때 송필휴가 『여지도 전』을 소장하고 있었거나, 또는 1751년의 監試에 응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붙임>

## 문화재 지정 조사보고서

### 1. 대상문화재 개요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輿地圖
- 소유자(관리자) : 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공원로 \*\*
- 수 량 : 1帖(15折)
- 규 격 : 20×35cm(펼친 지도)
- 재 질 : 紙本
- 형 식 : 호접장 / 채색필사본
- 조성연대 : 1751년 추정
- 제작자 : 미상
- 내 용 :

면	내용	면	내용	면	내용
앞표지	결실 (洋紙를 덧댐)	6면	東國八道大揔圖	12면	慶尙道
1면	朝鮮八道揔圖	7면	京畿道	13면	江原道
2면	渾天下圖	8면	忠清道	14면	咸鏡道
3면	中國圖	9면	黃海道	15면	都城揔圖
4면	琉球國圖	10면	平安道	뒤표지	輿地圖全 監試 목서
5면	日本國圖	11면	全羅道		

## 2. 문화재 사진 :

		
1. 표지 앞면 / 뒷면	2. 호접장 장정	3. 호접장 양면 가장자리 폴칠
		
4. 조선팔도총도	5. 혼천하도	6. 중국도
		
7. 유구국도	8. 일본국도	9. 도성팔도대총도
		
10. 경기도	11. 충청도	12. 항해도
		
13. 평안도	14. 전라도	15. 경상도



		
16. 강원도	17. 함경도	18. 도성총도
		
19. 도성총도 지명 가필	20. 표지와 연결된 조선팔도총도	21. 경상도 1767년 안음(安陰)을 안의(安義)로, 산음(山陰)을 산청(山淸)으로 개칭
		
22. 함경도 지도 좌측 하단 '歲在辛未三月日手粧'	23. 함경도 지도 좌측 하단 소장인	24. 하단부 훼손

### 3. 조사자 의견

#### ○ 개요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었고 현재도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는 ‘동람도형 지도책’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수록된 조선전도와 도별지도를 가리키는 동람도(판심에 ‘東覽圖’라는 약칭이 있다)에 기초하여 제작된 것이다. ‘동람도형 지도책’은 16세기 중후반부터 19세기까지 여러 판본이 제작·유통되었으며 현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10개 기

관에 114종이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동국지도》(一簣古912.51-D717)는 8장의 도별지도가 ‘경기-충청도-경상도-전라도-황해도-강원도-평안도-함경도’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고 각 도별지도 뒤에 첨부된 지계리수(地界里數) 등 16장이 반으로 접혀 묶여있다. 동람도형 지도책의 목판본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지도의 여백 주기에는 1556년(명종 11)에 신설된 전라도의 이진보(梨津堡)가 기록되어 있어 16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동람도형 지도책’은 처음에는 동람도의 도별지도 8장을 한 데 모으고 일부 지지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다가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여러 장의 지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에서만 만들고 사용한 독특한 내용의 세계지도인 천하도와 외국지도(중국, 일본, 유구국)들을 추가하면서 17세기 후반 ‘동람도형 지도책’은 천하도-중국도-일본국도-유구국도-조선전도-도별지도(8장)로 구성된 13장의 형태로 완성되었다.

1676년(숙종 2)을 전후하여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지도》(가람古912.5-561)는 천하도-중국도-일본도-유구국도-동국팔도대총도-경기-황해도-강원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평안도-함경도의 순으로 13장으로 완성된 ‘동람도형 지도책’의 전형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오늘날 대량으로 남아 있는 조선 후기 ‘동람도형 지도책’은 수록된 지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세계지도(천하도)-외국지도(중국, 일본, 유구국)-조선전도-도별지도(8장)의 13장 구성이 다수를 차지한다.

조선 후기에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동람도형 지도책’이 크게 유행하면서 목판본은 물론 필사본 지도책도 많이 제작되었다. 필사본은 목판본 지도책의 전형성을 따르면서도 제작자나 주문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지도가 조합되거나 필요에 따



라 지명 등의 정보가 추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필사본의 ‘동람도형 지도책’은 구성이나 내용이 훨씬 다양하다.

#### ○ 문화재 양식 및 특징

조사 대상 《여지도(輿地圖)》(겉장 뒷면에 輿地圖 표기)는 채색필사본의 지도책으로 장정(裝幀)은 세로 20cm, 가로 35cm 크기로 제작된 지도의 한 장 한 장을 지도 면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접어 중첩하고 접은 판심(版心)의 바깥쪽에 풀을 칠하여 책 겉장의 등 안쪽에 붙인 호접장(蝴蝶裝) 형태이다(사진 2, 3). 겉장의 앞면은 결실되어 양지(洋紙)를 덧대었고 뒷면에는 ‘輿地圖全 監試’ 묵서(墨書)가 있다. 겉장 앞면 부분이 결실되어 이후 소장자가 뒷면에 지도책의 제목을 써넣은 듯하다(사진 1).

이 지도책에 수록된 지도는 조선팔도총도-혼천하도-중국도-유구국도-일본국도-동국팔도대총도-경기도-충청도-황해도-평안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함경도-도성총도의 순으로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사진 4~18). 이 가운데 양지로 덧댄 겉표지와 연결된 1면의 〈조선팔도총도〉는 겉표지를 덧대면서 다른 지도책에 있던 지도를 추가했거나 나중에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사진 20).

2면 〈혼천하도〉부터 14면 〈함경도〉까지 13장으로 조합된 지도의 구성과 각 지도의 전체적인 윤곽 등에서 17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된 목판본 ‘동람도형 지도책’의 전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사하면서 마지막 장에 〈도성총도〉를 덧붙여서 수도 한양의 지리정보를 담은 지도를 추가했다. 따라서 본래 지도가 제작될 당시의 구성은 ‘동람도형 지도책’의 전형인 13장 구성에 〈도성총도〉를 첨부하여 14장의 지도책으로 제작되었다.

7면 〈경기도〉부터 14면 〈함경도〉까지 8장의 도별지도는 도별로 군현의 명칭, 찰방역(察訪驛), 진산(鎭山), 주요 도서(島嶼), 사방으로 연결되는 지역 등을 표시한 간략한 지도이다. 군현의 명칭은 원 안에 군현

의 품계와 함께 기록하였고 도별로 군현의 색을 오방색(五方色)으로 구분하여 경기도의 황색을 중심으로 동쪽 강원도는 청색, 서쪽 황해도는 백색, 남쪽 전라도는 홍색, 북쪽 함경도는 흑색 등으로 채색하였다. 각 군현의 진산을 비롯한 주요 산의 모습은 회화식 표현 방식으로 독립된 봉우리형으로 나타내었다. 다만 모본을 필사하는 전통적인 지도 제작 방식 때문인지 혁파된 고을 이름이 기록되거나 지도 여백에 기록된 고을 숫자가 틀려있어 내용면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확인된다.

황해도의 경우, 1651년에 우봉(牛峯)과 강음(江陰)을 합하여 금천(金川)을 설치하고 24개 고을에서 23개 고을로 구성되는데 지도에는 24개 고을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소장자가 사(四)위에 삼(三)으로 고쳐 쓴 부분이 확인된다. 전라도는 57개 고을이었으나 1660년에 진원현(珍原縣)이 장성부(長城府)에 편입되어 56개 고을로 편제되었다. 지도에는 전라좌우도합 57개 고을로 기록되어 있다.

15면 〈도성총도〉는 1751년에 도성을 지키는 법률인 ‘수성절목(守城節目)’을 반포할 때 책자 첫머리에 실기 위해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제작한 목판본 지도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之圖)〉를 필사한 지도로 생각된다. 정교한 필선으로 필사되어 있으며 지명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부 지명은 이후 소장자가 가필한 흔적이 있으나 전하는 수량이 많지 않은 조선전기 도성도를 필사한 지도로 의미가 있다(사진 19).

조사 대상 《여지도(輿地圖)》의 제작 시기에 있어서도 1751년 〈도성삼군문분계지도〉를 필사한 〈도성총도〉 제작 시기와 1767년 이후의 지명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14면 〈함경도〉 지도 좌측 하단에 ‘세재신미삼월일수장(歲在辛未三月日手粧)’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1751년에 제작된 지도로 추정할 수 있다(사진 21, 22). 2면 〈혼천하도〉와 14면 〈함경도〉 면에는 소장인으로 보이는 ‘상산송필휴보백장(常山宋弼休輔伯章)’ 주문방인이 찍혀 있다(사진 23).

#### ○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조사 대상 《여지도(輿地圖)》는 겉표지 앞면은 결실되어 양지(洋紙)를 덧대었고 사용 흔적이 많아 지도가 접힌 부분의 하단부가 일부 훼손었다(사진 24). 1면의 〈조선팔도총도〉는 중부지방이 결실되어 훼손 상태가 심한 편이나 이 지도는 소장자가 후에 첨부한 지도이다. 2면 〈혼천하도〉, 3면 〈중국도〉 등 앞쪽에 수록된 지도에서 중간 접히는 부분이 훼손되어 지명이 지워진 부분이 확인된다. 대체로 사용 흔적이 많고 일부 오염이 되어 있어 지명이 지워지거나 흐릿한 부분도 확인되지만 대체로 채색된 안료와 지명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현전하는 이 계통의 지도책 중에서는 훼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클리닝과 표지 보수 등의 보존수리가 요구된다.

#### ○ 지정 가치 의견

조사 대상 《여지도(輿地圖)》와 형태·내용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동람도형 지도책’은 국내의 주요 도서관 및 박물관에 114종이 소장되어 있고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양도 많아 희소한 가치를 지닌 지도책은 아니다. 그러나 지도에 사용된 종이(닥지)와 배접두께, 채색수준과 글씨체 등을 종합해 보면 민간이 아닌 도화서 화원이 참여한 국가기관의 제작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도성총도〉가 함께 편집된 ‘동람도형 지도책’의 사례는 극히 드물며 1751년 〈도성삼군문분계지도〉 제작과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4. 지정가치 유무 의견 : 可

#### 5. 참고문헌

- 「16~17세기 동람도식 목판본 지도책의 조선전도와 도별도에 대한 연구」 (이기봉, 문화역사지리 제26권 제2호(2014), 20-37쪽)
- 「동람도(東覽圖)형 지도의 유형 비교 -도별도를 중심으로-」 (이은영,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도예찬』 (국립중앙박물관, 2018, 130-1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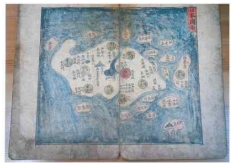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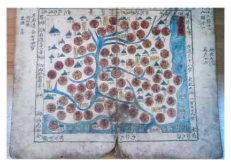



<붙임>

## 문화재 지정 조사보고서

### 1. 대상문화재 개요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輿地圖 \* 쏘은 1책이 전부라는 의미이므로 명칭에서 제외
- 소유자(관리자) : 문\*\*(부평구 부평공원로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공원로 \*\*
- 수 량 : 15면(표지 미포함)
- 규 격 : 가로 21cm 세로 35cm
- 재 질 : 종이
- 형 식 : 고서(지도책)
- 조성연대 : 1751년(추정)
- 제작자 : 미상

### 2. 문화재 사진

				
(조선전도)	혼천하도	중국도	유구국도	일본국도
				
동국팔도대총도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도성총도

### 3. 조사자 의견

#### ○ 문화유산의 특징

- 여지도(輿地圖)란 명칭은 지도 또는 지도책이란 보통명사임. 내용 또는 계통이 다르면서 ‘여지도’란 서명의 지도책 또는 지도가 다수 존재함. 따라서 명칭만으로는 지도책의 내용 및 계통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이란 주기를 기록해 주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는 조선전도 1장, 도별도 8장이 수록되어 있고, 지도의 판심(版心)에 ‘東覽圖(동람도)’란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 수록된 도별지도 8장을 기초로 정보를 변형시켜 1500년대 중후반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였고, 1600년대에 원형천하도(세계지도)-중국도-유구국도-일본국도 등 4장, 동람도의 조선전도 1장이 합해진 13장의 형태가 출현하여 일반화됨.
-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은 조선후기에 가장 많이 이용된 지도책임. 즉, 조선후기 지도에 대한 가장 많은 수요자가 필요로 했던 국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는 지도책이라고 이해하면 됨. 수요가 많았던 만큼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목판본으로 제작되었고, 목판본에 기초하여 필사한 필사본의 종류도 다양함. 그 결과 국내외에 현존하는 수량이 수백 종에 달할 정도로 흔한 지도책이 되었음. 지도에 수록된 정보는 고을, 진보(鎭堡), 찰방역(察訪驛), 고을에 파견된 지방관의 명칭, 서울에서 고을까지의 거리 등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며, 판본에 따라 정보의 가감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음. 본 지도책은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의 목판본을 기초로 필사한 필사본이며, 수록 정보의 관점에서 특이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는 않음. 여백의 통계가 일부 틀리고, 혁파된 고을의 이름이 표시되는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정밀하지 못한 측면이 나타남. 다만 글씨가 아주 정서되어 있고, 경기도의 황색을 중심으로 동쪽 강원도의 청색(靑色), 서쪽 황해도의 백색(白色), 남쪽 전라도의 홍색(紅色), 북쪽 함경도의 흑색(黑色, 실제로는 회색) 등 오방색(五方色) 채색의 수준도 높음.
- 본 지도책은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의 13장에, 1751년 홍계희(洪啟禧, 1703~1771)가 도성을 지키는 법률인 ‘수성절목(守城節目)’의

첫머리에 수록하기 위해 목판에 새겨 인쇄한 목판본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之圖)」에 기초하여 그린 필사본 「도성총도(都城總圖)」를 합해 총 14장의 지도책으로 제작되었음. [\* 삼군문(三軍門)은 도성의 방어를 책임지던 훈련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의 세 군영(軍營)을 가리킴.] 후에 소장자가 조선전도 1장을 첨부하여 15장의 지도책으로 개장함. 「도성총도」는 회화성이 뛰어난 수작이고, 후에 첨부된 조선전도는 조선전기 계통의 지도를 소형으로 축소하여 필사한 지도임. 목판본으로도 제작 유통되었으며, 현존하는 수량이 많지 않은 희귀본임.

- 지도의 제작 시기는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之圖)」(1751) 이후이며, 지명의 관점에서 1767년 이후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함경도 지도 하단에 기록된 ‘歲在辛未三月日手粧(세재신미삼월일수장)’에서 辛未년은 「도성삼군문분계지도」의 제작 연도인 1751년일 가능성이 높음. 함경도 왼쪽 아래에는 ‘常山宋弼休輔伯章(상산송필휴보백장)’이란 인장이 찍혀 있는데, 향후 송필휴란 인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지도는 이용을 전제로 제작되는 실용적인 작품으로, 잦은 이용으로 쉽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본 지도책은 종이 한 장에 지도를 그려 안쪽으로 반을 접은 후 폴로 뒷면들을 이어붙인 호접장(胡蝶裝)의 방식으로 제책되었음. 이럴 경우 종이가 얇으면 자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접혀진 부분의 훼손이 쉽게 일어남.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겹의 종이를 붙여서 두껍게 만들었음. 본 지도책은 오랜 이용의 과정에서 접는 부분이 일부 훼손되었지만 현존하는 이 계통의 지도책 중에서는 훼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다만 후에 소장자가 첨부한 조선전도의 경우 중부 지방의 훼손 상태가 심한 편인데, 이 지도책에 첨부하기 전부터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 문화재적 가치

- 희귀성이 낮은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의 지도책이라는 점, 수록된 정보에서 특이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지명과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점 등의 측면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낮음.

- 하지만 첫째, 글씨와 채색의 수준이 높아 도화서 화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제작 가능성이 있고 둘째, 회화 수준이 높은 「도성총도」가 함께 편집된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의 사례가 극히 희귀하며 셋째, 후에 소장자가 첨부한 조선전도 또한 희귀한 사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사적 보존 및 학술적(지도학사적) 연구 가치가 충분하여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4. 지정가치 유무 의견 : 可